

2026학년도 해읍 모의고사 시즌3 해설지 정오표					
최근 수정일 : 2025.10.10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수정일	비고
해설지 8쪽	15번 ②	2문단에 따르면 주희는 명분과 의리를 이어받고 이에 따라 이적을 물리치는 것만이 기존의 국가를 계승했다는 증거라고 하였다. 그런데 조선은 청나라를 물리친 상태가 아니므로, 주희의 입장에서 조선이 기존의 국가를 계승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이 명나라를 계승했다는 주장은 주희의 정통론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구양수는 정통의 정의를 '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 잡는 것'과 '통일되지 않는 것을 하나로 합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명분과 의리를 이어받았다는 점에서 구양수의 정통론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구양수는 정통을 끊기고 다시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보았기에, 단순히 이어받았다는 것은 구양수의 입장에서 정통을 담보하지 못한다.	2025.10.10	해설 수정